

## '23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7.19	회의실	11/13	4	1	16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곽선희·김안나·송경용·심상돈·오광호·오동식·이숙희·이상길·임동훈·조경완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근수(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6	1	0	0	7	0	7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7	0	0	7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시사 ON>, 패널과 기자 중심의 화면 답답함. 주제에 맞는 다양한 현장 화면을 통한 공감대 형성, 시청 몰입도 필요	-<시사 ON> 무너지는 교관, 회복 방안은 없나(8.4)에서 현장 화면과 설문조사 그래픽 활용, 바디캠 도입, 여러분의 생각은?(8.11) 현장 리포트 화면 활용 등 방송 조치	'23.7.
"	현대아이파크 철거 관련, 상인, 주민 등 보상 방안 필요함.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	-<뉴스투데이> 현산, 아이파크 지상층 전체 철거로 변경(8.3) 등 방송 조치	"
"	자동차 산업, 인공지능 등 광주 미래산업에 관한 관심 필요	-지역발전을 위해 미래산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하겠음 -<뉴스투데이> 대장암 3차원 유전자 지도(7.28), <뉴스데스크> 자율주행차 산업의 메카 된다(7.21), 반도체는 실패, 소부장은 성공(7.20) 등 방송 조치	"
"	<시사 ON>,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 부족 아쉬움	-<5시 뉴스> 2023 디자인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 펑수 위촉(8.1), <뉴스데스크> 9월 디자인축제 기대하세요(7.21) 등 방송 조치	"
"	폭염, 폭우 등 대피 방법 안내 반복적으로 방송 필요	-<5시 뉴스> 광주·전남 폭염경보 발령 '온열질환 주의'(7.31),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 수시 편성 등 방송 조치	"
"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례 소개 바람	-<시사인터뷰 오늘> 나누면 복이 와요(7.20) 등 방송 조치	"
교양	<광주MBC보다>, 우리 지역의 정보 다양하게 다뤄주길 바람	-<광주MBC 보다> 잠들어있던 마한을 깨우다~ 문화유산 한마당(7.31), 월간 본술랭 가이드(7.24) 등 지역 정보 방송 조치	"
보도	전라도 천 년사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바람	-<뉴스투데이> 바른역사시민연대, 전라도 천년사 전권 폐기가 마땅하다(7.27) 등 보도 조치	'23.6.

총 건수	8건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시사 ON>, 패널과 기자 중심의 화면 답답함. 주제에 맞는 다양한 현장 화면을 통한 공감대	다양한 화면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0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형성, 시청 몰입도 필요(곽선희)				
"	현대아이파크 철거 관련, 상인, 주민 등 보상 방안 필요함.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송경용)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습니다	○		
"	자동차 산업, 인공지능 등 광주 미래산업에 관한 관심 필요(심상돈)	지역발전을 위해 미래산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		
"	폭염, 폭우 등 대피 방법 안내 반복적으로 방송 필요(오광호, 이상길)	지역적 대사의 성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습니다	○		
"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례 소개 바람(이숙희)	지역민의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습니다	○		
교양	<광주MBC보다>, 우리 지역의 정보 다양하게 다뤄주길 바람(김안나)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보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3년 7월)

일 시	2023. 7. 19.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곽선희, 김안나,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오동식, 이숙희, 이상길, 임동훈, 조경완(11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4명)	

### ■ 회의 내용

- 곽선희, 심상돈, 오동식, 이숙희, 이상길, 임동훈 위원 순으로 위촉장을 수여함
- 조경완 위원장 : -다행히 광주, 전남은 덜한 편이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재난과 관련해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뛰는 카메라 기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편하게 집에서 보도를 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험난한 현장에서 직접 뛰어들어 촬영해야 해서 고생이 많으시다.
- 김낙곤 사장 : -지난달부터 시청자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아시다시피 광주MBC 시청자위원회는 법적 기구다. 공영방송 광주MBC의 시청자위원께서 각 분야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 모시게 됐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의견제시, 칭찬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욱 발전된 시청자위원회를 기대한다.
- 조경완 위원장 : -업무보고를 해달라.
- 이승철 본부장 : -김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광주MBC와 광주광역시와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체결을 했으며, 김치 캠페인, 광주김치 포럼, 대한민국 김치대전, LA김치페스타, 김치 해외 도전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음식 김치와 김장 문화를 조명하고 김치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를 열 것이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남도 우리 술 품평회가 7월 11일 공개홀에서 열렸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홍보하기 위한 행사였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세계 속의 마한> 해외취재가 중국과 일본에서 있었고, 이 다큐멘터리는 10월 중 방송 예정이다. <레드디쉬> 전국 편성이 매주 수요일 있으며,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강기정 시장, 윤병태 시장 편을 방송했다. <2023 풍류달빛공연> 녹화가 8월 28일 공개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계상 본부장 : -식수난을 벗어나기 무섭게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6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반복적인 물 폭탄 피해를 보도하고, 호우특보 상황에 따라 전국 뉴스에 LTE 참여를 했다. 기상 악화에 대비해 재난방송 체제를 점검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소홀한 광주시교육청 실태를 비판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대안기관 인건비 급식비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취재했다. 보도 이후 광주시교육청 입장을 바꿔 조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광주MBC뉴스 구독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올해 안에 10만 돌파가 목표다. MBC뉴스 유튜브 채널에 광주MBC 제작물 업로드 하는데 이후 구독자가 증가세다. 디지털 영역에서 광주 뉴스 관심이 증가하고 조회 수가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과 이에 따른 수산업 피해 걱정 등에 대해 집중하여 보도할 예정이며, 광주·목포·여수 디지털 뉴스 콘텐츠 공동제작 준비를 하고 있다.
- 조경완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
- 곽선희 부위원장 : -<시사 온>에서 강기정 시장 1년을 평가했다. 민선 8기 1년 평가 부분에서 강력한 추진력

과 속도감은 문제 해결방안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소통은 다소 부족하다는 강수훈 광주시의원, 오주섭 경실련 사무처장 두 분 패널의 평가를 보며 공감되었다. 군 공항 이전 지원방안에서 대구 2배, 수원 3배에 해당하는 1조 원이라는 통 큰 제시를 했는데 속도감을 얼마나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기대가 된다. 오랫동안 논의가 된 만큼 빠른 결정과 함께,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며 민간 공항 이전도 반드시 함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등산 관광개발과 일신방식의 4,000세대 아파트 유치 등 도시 개발 진행 상황 등 광주시민의 관심 사항을 다루어 많은 관심이 갔다. 신세계백화점의 4배 확장 이전과 금호월드까지 연계 시 발생할 교통 대란에 대해 교통지옥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속도감보다는 균형감 있는 논리 필요한 시점이다. 두 분 패널과 주현정 시청 출입 기자에게 카메라 앵글을 계속 비추고 있어 답답했다. 딱딱한 화면보다는 현장을 보여주면 이해도도 높이고 현장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감대와 몰입도 높일 것 같았는데 아쉬웠다. 5.18 평가는 국민이 공감하고 세대를 넘어서는 방향성 문제이며 광주의 문제라는 평가를 위한 토론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하겠다.

-7월 14일 방송한 정쟁만 남은 정국 출구? 편에서는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변경은 2021년 4월 발표한 내용인데 예비 타당성 문제가 나오면서 백지화 발언 배경과 가능성 등 실제적 진실접근과 개발 과정 특혜 의혹 등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토부와 선 그은 대통령실 반응에 국민이 의아심을 갖게 된 것 같다. 확실한 자료 위주로 직권 남용 부분 부각에 확실한 스모킹건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천하람 혁신위원장과 최용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말씀에 많은 공감 갔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에 천하람 의원의 과학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공감이 간다. 국민이 납득 가지 않는 IAEA 보고서가 과학적 결함 있어 불안한 상황에 자국 수산물 이익을 위해 방류를 선택한 방법의 문제와 여과기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민주당이 다른 방법을 선택 못 하고 무조건 공격하는 모습 보다는 좀 더 성숙한 과학적 근거를 위한 강구 마련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시사 온> 프로그램은 주제가 무거운데 내용에 맞는 달라진 화면 구성과 화면이 밝아지면서 좀 더 세련된 느낌 들었다. 색상대비도 괜찮았고 두 분 앵커의 의상과 표정도 밝아 시청하기 편안했다. 앞으로도 화면 구성이 주제 내용에 걸맞게 달라지기를 희망해 본다.

- 김안나 위원 : -<광주MBC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우리 지역의 생활, 여행, 문화와 예술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지난 방송분을 보면서 느낀 점은 다른 지역 소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 정보도 더욱 다양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 특히, 6월 5일 치유의 숲으로 초대합니다는 우리 지역에도 지자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치유의 숲이 최소, 20여 곳 이상이 있으며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다. 광주·전남에 있는 치유의 숲들도 탐방 체험으로 소개해주면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6월 26일 <광주MBC보다> 재난탈출 넘버원 코너와 7월 4일 라디오방송 <시사인터뷰 오늘> 기상변화와 올여름 태풍 대비책에서는 재난 상황 행동 요령을 알려줌으로써 요즘 같은 기후변화 위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게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송경용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아이들이 없는 송정동이 아이들이 웃는 동네가 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는 꼬부랑 동화마을을 소개했다. 광주 광산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의도에 맞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온다고 한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산구는 놀거리도 많고 SNS 인기 장소들과 맛집 등으로 MZ 세대들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 중 하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보고 MZ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갈 수 있는 인기 장소를 알게 돼서 좋았다.

-<광주MBC 뉴스투데이> “자정까지 진료합니다.” 보도를 시청했다. 광주 관내 야간진료 아동병원은 9곳, 그마저 밤 9시까지 진료를 하는 곳은 4곳뿐이어서 학교며 직장이며 포기하고 일과시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앞으로는 보호자의 고충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365일 자정까지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어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다만 약을 처방받을 약국이 없어 광주 시가 기독교병원 근처 약사들과 논의하여 하루빨리 당번약국 지정, 인근 공공 심야 약국과의 연계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심야병원이 개원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식 개원 전까지 경증 치료만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아쉬웠다. <광주MBC 뉴스데스크> ‘부수고 절단하고 철거 시작’ 보도는 아파트 고층부가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구조물 철거가 진행됐다는 소식이다. 전 세대 재시공 발표 후 201동 붕괴부 안정화 작업과 해체 공사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현재 마감재 해체와 임시 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현대산업개발 A1 추진단장은 말을 하였다. 국내에 적용 중인 해체 공법 중 가장 친환경적인 DWS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철거작업이 붕괴 사고 1년 6개월 후에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공사장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도 있어야 할 것 같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 심상돈 위원 :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광주시민이 묻고 강기정 시장이 답하다>에서 광주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토론했다. 광주 미래산업의 두 축은 인공지능(AI)과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대전환하는 시기에 적절한 토론 프로그램이었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후발 주자로서 가지고 있는 불리함을 극복해야 하며 10년 후 광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이고 섬세한 안목으로 기초기술을 키우고 활성화할 수 있는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자동차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또한 필요하다. 100만 평 국가 산업단지를 미래형으로 채울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에 대한 실속 있는 투자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법도 요구된다. 제조에서 서비스로 전환되는 시기에 규모의 경제와 기술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실제 광주시의 정치 현안 사업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에 힘을 보태고 감시할 수 있는 광주문화방송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후발 주자로서 소재와 부품 등 열악한 광주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 현재와 미래에 대한 너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토론 진행자의 진행보다는 발표자들의 다소 두서없는 의견 개진으로 정리가 잘 안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 무더운 여름, 정장 차림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토론 참여자들, 특히 시장님의 옷 선 마무리가 잘 안되는 아쉬움이 또한 있었다.

- 오광호 위원 : -<광주MBC 보다> 6월 26일 편에서는 안동의 도심 속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소개했다. 민속놀이뿐 아니라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과 체험 부스들이 많아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축제인 것 같았다. 저녁 시간까지 힙한 놀이문화를 진행하며 전통주까지 즐기는 모습이 기존의 민속 축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 좋았다. ‘재난탈출 넘버원’ 코너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재난 문자와 관련한 정보들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재난 문자의 3가지 종류 즉, 위급재난 문자/긴급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에 따라 대피 방법도 달라져야 하며, 반드시 비상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비상용품 등을 챙겨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특히 요즘 같은 폭우 철 주위에서도 사건 사고가 잦은데,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다. 호우주의보 발령 시 가능한 실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 실내 침수시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기 전 반드시 대피해야 하고, 여름휴가 및 폭우, 폭염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대피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같은 내용일지라도 반복적으로 방영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시사 ON> 광주비엔날레 30년 새로운 비전은? 편도 시청했다. 지난 7월 9일 폐막한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하여 미술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국제적인 위상은 높아졌지만, 작품의 정체성과 방향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현재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5대 수준의 미술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이 소외당하고 작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이 많아 대표님과 작가님들의 고민이 많아 보였다. 올해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는 세상에 수많은 대립이 있으나, 물이라는 속성처럼 하나로 모으고 연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작품을 통해 표현했다고 광주비엔날레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다. 추가로 영상을 통해 전시작품을 짧게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한두 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내년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을 맞이하여 추가적인 홍보를 해주셨는데, 올해 9월에 개막 예정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관련하여서도 홍보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남았다.

- 이숙희 위원 : -처음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MBC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고 직원들에게 물었다. 살아있는 방송, 멋진 방송, 공감하는 방송, 마음이 가는 방송, 생각지 못한 곳을 건드려 주는 방송이라고 답했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은 오면서 통화를 했는데 바른 정보를 주는 방송은 유일하게 MBC라고 했다. 정말 맞는 말일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MBC를 보는 안목이 탁월하신 것 같다. 배울 것도 많겠다고 생각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다. 디엔에이 변화 등 유전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광주MBC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던 보이는 라디오 <시사인터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목요일 방송되던 <나누면 복이 와요> 코너가 종영되었다. 출근 시간에 김귀빈 아나운서가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액 기부자들의 성장과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일반 청취자들은 당연히 부자니까 그냥 고액을 쉽게 기부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출연해서 기부자들은 왜, 어떤 생각으로 기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참신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일반 시청자들의 고액 기부자와 부자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기부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MBC의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 강필오 위원 : -오늘은 첫 참석이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회의 때에는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다.
- 이상길 위원 : -한국갤럽에서 시청자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던데 성실하게 답을 했다. <본방을 보자>에서는 장마가 지나간 후에 조심해야 할 것들에 관해 잘 정리를 해줬다. 시민들이 조심하고 피해야 할 여러 사항을 세밀하게 잘 다뤄줬다. 기후 위기에 대처할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기후 위기가 닥치면 광주시민이나 도민들이 비상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방법들을 얘기해주면 어떨까 생각했다.
- 임동훈 위원 :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여유가 없어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겠다.
- 송경용 위원 : -김치 프로젝트에서는 시청자위원이 단체로 참여해서 어려운 곳도 도우면 좋을 것 같다. 정도전이 나주에서 귀향하고 올라갔는데, 나주에서 농민들에게 받았던 민본정신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 정신이 동학운동으로 발전한 것으로 도올 선생이 쓴 글에 나온다. 영주시와 나주시 역사 속의 인물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해봤다.
- 김낙곤 : -올해 광주김치축제가 30년이다. 하지만 국민이 잘 모른다. 김치의 날도 법정기념일인데 서울에서만 기념행사를 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김치의 날에 김장이라는 문화, 다 같이 모여 공동체가 음식을 만들고 다 같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런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중계를 통해 알리면 어떨까 생각한다. 광주 공동체가 금남로라는 공간에서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모이고 여러 가지 나눔의 정신을 위해 우리가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다.
- 오동식 위원 : -김치에 대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 문제점은 플랫폼에 관한 것이다. 터미널에 차가 몰리고 사람이 몰리기에 무엇을 하든 잘 팔린다. 그런데 김치축제는 관계자만 찾는다. 사람이 없다. 일반 시민이 모른다. 관계자용 행사가 돼버렸다. 그게 아니라 무슨 축제를 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



다. 플랫폼이 중요한 것이다. 축제를 하더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충장축제를 하면 사람이 몰린다. 무슨 축제를 하려면 결국 돈인데, 고액 기부자를 통해 확대하면 광주에서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조경완 위원장 : -MBC가 시민들 가운데로 와서 별도로 판을 크게 벌이겠다는 것이니 잘될 것이다. 이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